

박근형 판 '테이큰' 뚝다



액션 느와르 '그랜드 파티'서 57년 연기 내공 펼쳐

월남전 참전용사인 기광(박근형)은 오래전 가족과 등진 채 홀로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듣는다. 아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음을 알게 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그는 홀로 남겨진 손녀를 위해 목숨을 건 응징에 나선다. 영화 '그랜드파티'는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70대 노인을 단독 주연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언뜻 즐거리와 외형만 보면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 시리즈와 닮았다. '테이큰' 시리즈에서 주인공 리암 니슨은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감행한다. 그러나 '테이큰'이 리암 니슨의 화려한 액션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그랜드파티'는 홀로 남겨진 손녀와 할아버지의 정서적 교감, 주인공의 심리 변화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영화 '그랜드파티'는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70대 노인을 단독 주연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언뜻 즐거리와 외형만 보면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 시리즈와 닮았다. '테이큰' 시리즈에서 주인공 리암 니슨은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감행한다. 그러나 '테이큰'이 리암 니슨의 화려한 액션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그랜드파티'는 홀로 남겨진 손녀와 할아버지의 정서적 교감, 주인공의 심리 변화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박근형은 17일 시사회 직후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영화인 데다, 노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폐를 끼치게 되고, 그 결과가 끔찍한 재앙으로 닥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영화는 결국 그런 소통의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올해 77세인 박근형은 액션신을 대역 없이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화 속 버스운전사라는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버스운전면허를 별도 취득했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 트레이닝도 받았다. 영화 촬영이 30대가 넘는 한여름 불볕더위에서 진행되면서 두 번이나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리암 니슨처럼 맨몸으로 악당을 제압하는 '무지막지한' 액션신은 아니지만, 장도리와 엄홍 액션신은 그의 서구적 마스크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영화 포스터에 '대배우 박근형의 액션 느와르'라는 표제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서 감독은 "이 영화의 원작인 '인간사냥'을 보자마자 박근형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랜드파티'는 배우 박근형에게는 맞춤형을 입은 듯한 영화지만, 관객들이 편안하게 몰두할 수 있는 영화만은 아니다. 미성년 성매매, 청소년 범죄 등 우리가 직접 마주하기 불편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기광이 처한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며 기광의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복수의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8월31일 개봉. /연합뉴스

썸통 더위 날릴 '병만TV' 오픈

수중 싸이클 등 '익스트림 코미디' 4주간 매주 수요일

특유의 순발력과 다재다능함으로 슬랩스틱 코미디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평소 사람을 웃기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인 그이지만, 이번에는 하는 걸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웃기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물 속에서 산소통 없이 사이클을 타고,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정도는 약과다. 요리를 하다 엉덩이에 불이 붙은 채 뛰쳐나가고, 벌렁 뒤집히는 차 속에서의 위험한 스텐트 연기를 자처한다. 그가 표방하는 새로운 코미디 장르는 이름하여 '익스트림 코미디'.



첫선을 보인 작품들을 보면 웃기고 안 웃기고를 떠나 이들에 걸맞은 무모한 시도여서, 일단 그렇고 그런 개그와 리얼 바라이어티에 식상해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만하다. '개그콘서트' 탈인 코너에서 봤던, 단순히 웃어넘길 수만은 없게 만드는, 성실함이 깔린 김병만표 코미디여서 살짝 반갑기도 하다. 김병만이 주축이 된 새로운 웹코미디 '병만 TV'는 17일 네이버 TV캐스트와 V LIVE(V앱) 채널을 통해 첫 방송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한 영상은 물 속에서 높이뛰기, 사이클, 펜싱, 레슬링을 하는 수중전 에피소드 4편으로 클립당 4~5분 정도다. 개그맨 노우진, 추대영,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 등이 김병만과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이번 수중전 촬영을 위해 한 달간 연습을 하고 13시간에 걸쳐 촬영했다. 배우 예지원이 특별 게스트로 수중 촬영에 동참했는데, 앞으로 수중 클럽에서의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병만 소속사인 SM C&C와 tvN의 모바일 예능 제작소 tvN go가 공동 기획·제작한 '병만 TV'는 매주 수요일 총 4주에 걸쳐 공개된다. 김병만은 티저(맛보기) 영상을 통해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도전들을 했다. 무모한 촬영이 될 수도 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 정도로 한 장면 한 장면 신경을 썼다"고 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여기는 리우 (태권도, 골프, 체조, 농구)	00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골프, 체조)	00 리우 2016 (태권도, 골프)
7	50 여름특선 양코르 인간극장(재)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15 KBC 모닝와이드 30 리우 2016 (태권도)
8	25 아침마당	00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30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육상)	
9	30 KBS 뉴스	00 여기는 리우 (태권도, 육상)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5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아이엠 몽니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멸종 꿈 리우)	00 SBS 12 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류(재)	20 텔레몬스터 2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텔레몬스터	00 TV블로그 꿈지락 05 나홀로 세계여행 55 닥터 365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해! 동물탐험대 2 55 책갈피 요청 투표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수상한 휴가(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여기는 리우 (골프)	55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2016 리우 올림픽 (골프(여) 2라운드)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30 2016 리우 올림픽 (육상, 하키)	10 여기는 리우 (태권도, 골프)	10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태권도, 배드민턴)	10 리우 2016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12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사바이벌 여드벤처 3부 남중극해 무인도)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목은지 스파게티와 레오의 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지식채널 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꿈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로(재)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나의 가족 미디어중독 탈출기)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대자연의 환상곡, 노르웨이를 달리다) 21:30 한국기행 (여름의 맛 4부 밥먹고 기운내시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REALTIME 영감의 순간 3부) 22:45 다문화 교부열전 (손녀 바라기 시아머니와 답답한 며느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음 7월 16일 壬申)
子	48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60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2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84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68, 78	42년생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54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66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희석될 수도 있다. 78년생 투철한 의지로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5, 85
丑	49년생 현재의 공허함을 수용하면서 대응하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61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73년생 고만해 왔던 일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85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60, 53	43년생 포장만 잘 해도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55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67년생 중차대한 일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79년생 어떻게 하든지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5, 62
寅	50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62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74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더 할 것이다. 86년생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4, 21	44년생 재물 운이 기막히게 길한 날이니 잘 해봐라. 56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68년생 마음을 비우고 수종의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 80년생 신속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04
卯	51년생 과격적인 사제가 될 것이니라. 63년생 원칙대로 진행하라. 75년생 자신의 마음과 감지 달라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8, 77	45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57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69년생 본격적으로 임하기 이전에 검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81년생 끝나는 마당에 탈이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1, 81
辰	40년생 부담을 안게 되리라. 52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반세에 놓인다. 64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76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88년생 있는 그대로 가 가장 나은 형태이니라. 행운의 숫자 : 61, 36	46년생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58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70년생 피질 계제가 야니니 일단 수용하고 보자. 82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책케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6
巳	41년생 참된 국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53년생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65년생 의문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77년생 현실적이고 실질적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89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20	47년생 경시할 때에는 역을 당하게 되어 있다. 59년생 상당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하라. 71년생 합의하에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83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야니 될 행편이다. 행운의 숫자 : 89, 48